

2021년 7월 30일 조간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농식품부 ASF 종합상황반 반장 이동식(044-201-2511), 서기관 유재형(2515)
ASF 국내방역반 반장 이제용(044-201-2531), 사무관 이용진(2537), 김동우(2546)
환경부 야생동물질병관리팀 팀장 김지수(044-201-7491), 사무관 김태윤(7492) / 제공일: 7월 29일(총 6매)

걱정 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

여름철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 총력!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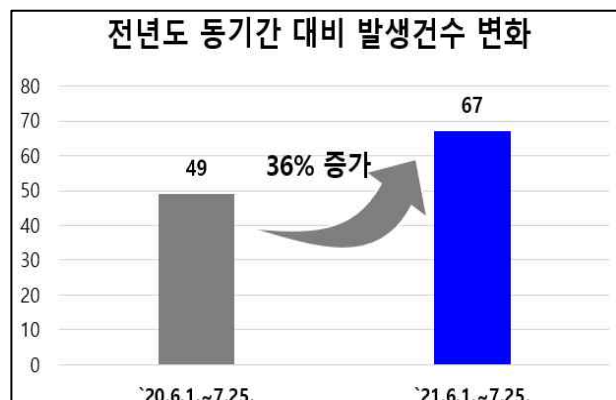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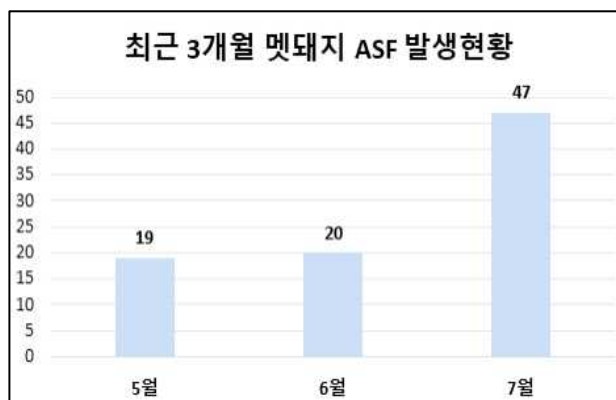
- ASF 중앙사고수습본부(본부장 농식품부장관, 이하 중수본)는 여름철 아프리카돼지열병(이하 ASF)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 강화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.

1. 발생상황 및 진단

- (발생상황) '21.5월 강원 영월군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(ASF)이 발생(1건)한 이후 양돈농장의 ASF 추가 발생은 없으나, 최근 야생멧돼지에서는 ASF 양성 개체(폐사체 및 포획 개체) 발견이 증가*하고 있다.

* 멧돼지 ASF 발생 : ('21.5월) 19건 → (6월) 20건 → (7.1~25일) 47건

* 최근 발생(전년 같은 기간 대비): ('20.6.1~7.25) 49건 → ('21.6.1~7.25) 67건(36% ↑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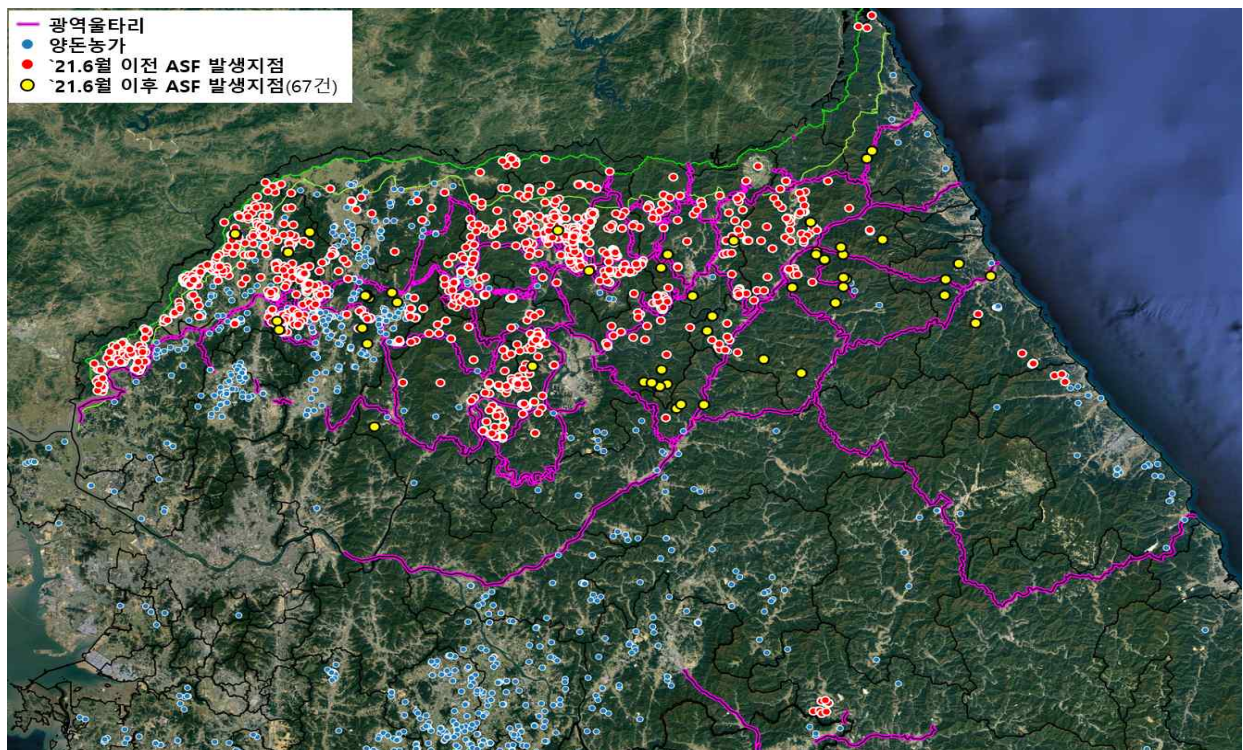
□ (상황진단) 최근 봄철(3~5월)에 태어난 어린 멧돼지가 활동을 시작하면서, 광역울타리 내에서 ASF 양성이 증가하고 있다.

○ 군집 생활을 하는 멧돼지의 특성*을 고려할 때, 주변에 어미 멧돼지 등 다른 감염 개체가 있을 수 있어 광역울타리 내의 광범위한 지역이 오염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.

* 멧돼지는 단일 또는 여러 가족이 군집을 이뤄 생활(어미와 새끼 5~6마리가 함께 생활)

○ 또한, 멧돼지 양성 검출지점으로부터 반경 10km 내에 있는 양돈농장도 많아 농장으로 ASF 유입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.

* 양성검출지점 주변 농가수(343호) : 500m내 6호, 3km 149호, 10km 188호



□ (시사점) 현 상황에서는 ① 멧돼지 폐사체 수색·포획 및 울타리 관리, ② 멧돼지 발생지역으로부터 농장으로 오염원 전파 차단, ③ 농장 내에서 축사 내로 오염원 유입 차단 등의 방역 조치가 중요한 시점이다.

2. ASF 방역 강화대책

- 중수본은 사육돼지 ASF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멧돼지 발생 지역 → 농장 → 축사로 이어지는 경로에 대해 오염원 전파를 철저히 차단한다.

① 야생멧돼지 관리	② 농장 전파 차단	③ 농장 차단방역
○ 최근 발생 빈발지역 폐사체 수색·제거 ○ 드론 열화상카메라 이용 전략적 포획 ○ 울타리 보강·추가설치 등 울타리 관리	○ 감염 야생멧돼지 농장 주변 접근 차단 ○ 바이러스 이동 경로 오염원 제거 ○ 영농기구 반입금지 등 농장 내 유입 차단	○ 농장내로 차량진입을 제한하는 통제조치 ○ 어미돼지축사(모돈사) 출입인원 최소화 등 관리 ○ 4단계 소독 등 방역 수칙 홍보

1. 야생멧돼지 관리(오염원 관리)

- (오염원 제거) 최근 발생 빈발지역*에 대해서는 환경부 수색 인력을 확대 투입(50→115명)하여 오염범위를 신속히 파악하고, 폐사체(오염원) 수색·제거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.

* 인제(인제읍 북면), 춘천(동면), 포천(영중면·영북면·이동면), 연천(중면), 양구(양구읍), 홍천(화촌면·두촌면), 가평(상면)

- (개체수 저감) 최근 양성 개체 발견지점 주변에 대해 드론 열화상카메라를 이용하여 멧돼지 서식여부를 확인한 후 특별 포획단(53명)이 전략적 포획*을 실시한다.

* 특별포획단 53명, 포획 트랩 1,120개 운용 등

- (울타리 관리) 가평·홍천 등 최근 발생이 잦은 최남단 광역 울타리에 대해 현장관리인(60명)이 훼손여부를 집중점검 한다.

- 가평·남양주에 2차 울타리를 추가 설치(약 30km, ~8월 중) 하여 경기 남부로의 확산을 차단할 계획이다.

2. 오염원의 농장 전파 차단

- (농장주변 접근 차단) ASF에 감염된 멧돼지가 농장 주변에 접근하지 않도록 발생지역 주변 농장(1,101호*)을 대상으로 외부 울타리·기피제 설치 등 방역실태를 집중 점검(3~8월)**하고 있다.

* ASF중점방역관리지구(파주 등 18개 시군) + 영월 등 12개 인접시군 및 양평 + 충북북부(제천, 단양 등 7개 시군) + 경북북부권역(영주, 봉화 등 10개 시군)

** 전국 농장(5,529호) 방역실태 점검완료(3~5월) 및 미흡농장 319호 보완 점검 중 (312호 완료, 7호 보완중) / ASF중점방역관리지구(360호) 8대 방역시설 설치 점검 중

- 특히, 양돈 사육밀도가 높은 양돈 밀집 사육단지 20곳에 멧돼지 차단 울타리를 설치하였고 추가로 양돈 밀집 사육단지 12곳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.

- (오염원 제거) 발생지역으로부터 양돈농장까지 이동경로의 오염원을 제거하기 위해 집중 소독을 실시한다.

- 소독자원 177대*를 동원하여 위험지역 수계(水系)와 검출지역 인근 도로, 양돈농장 진입로·주변을 주 5회 소독하고 있다.

* 농협 공동방제단 75대, 시군 소독차량 70대, 광역방제기 11대, 군제독차 21대 등

- (농장내 유입 차단) 영농활동으로 인한 바이러스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농장종사자의 경작지 출입을 제한하고, 트랙터 등 영농기구·장비의 농장 내 반입·사용을 금지한다.

- 복합영농 농장(197호)과 부출입구가 있는 농장(49호)의 방역실태를 중점 점검(7~8월)하고, 시군과 대한한돈협회 주관으로 농장 내 영농장비의 반입금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한다.

* 대한한돈협회 홈페이지 게시, 협회-지부-농장 간 SNS(카톡 등) 활용 방역수칙 전파

3. 농장 차단방역

- (차량 진입통제) 차량을 통한 바이러스의 농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전국 양돈농장 내로 차량 진입을 제한하고, 불가피한 경우 내부울타리를 설치하여 차량의 축사 접근을 차단한다.

* 차량이 작업하는 구역과 돼지 우리(돈사)가 있는 사육시설을 구분하고 사육시설 구역에 사람이 들어갈 때는 환복·소독을 반드시 하고 들어가도록 조치

- 중점 방역관리지구*와 영월인접 13개 시군은 차량진입 통제 조치를 완료했으며, 다른 지역은 단계적**으로 실시한다.

* 사육돼지·멧돼지에서 ASF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(접경지역 18개 시군)

** 멧돼지 위험에 따른 권역화지역·경기남부(~7월), 중부권역(~9월), 남부지역(~12월)

- (모돈사 관리) 사람과 접촉이 잦은 ‘모돈(어미돼지)*’에서 발생 위험이 큰 만큼 모돈사 출입 인원 최소화, 위생장갑 착용 등 방역 조치 이행실태를 시군과 검역본부가 철저히 점검한다.

* ASF 발생농장 17건 중 14건이 모돈에서 발생

- (방역수칙 홍보) 전국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4단계 소독*, 방목 사육 금지, 발생지역 입산금지·풀사료 급여 금지 등 농가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 수칙을 지속 홍보(SNS, 국가가축방역시스템(KAHIS) 문자 발송 등)한다.

* 4단계 소독 : ①농장 주변 생석회 벨트 구축, ②농장 내부 매일 청소·소독, ③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·손 소독, ④축사 내부 매일 소독

- 매주 수요일, 대대적인 농장 청소·소독 및 쥐·해충 제거 캠페인을 추진하고, 지자체와 농협 차량으로 양돈농장의 해충 방제를 지원하는 등 ‘축산 환경·소독의 날’을 지속 운영한다.

3. 현장점검 및 당부사항

- 김현수 중수본부장(농식품부 장관)은 7월 29일(목) 강원도 원주시 소재 도축장(강원엘피씨)과 강원도 홍천 멧돼지 ASF 검출지점 인근 멧돼지 차단 울타리를 점검하였다.
 - 이번 점검은 최근 멧돼지 ASF 발생 및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라 양돈농장으로 ASF 전파 차단과 축산물 작업장 코로나19 방역 관리 실태를 사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.
- 김현수 본부장은 강원엘피씨 도축장의 ASF 방역관리와 코로나19 예방 조치사항을 살펴보고,
 - “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작업장 환기·소독 등 환경위생 관리, 외부인 출입관리 등 방역관리와 함께 사적 모임 금지 등 사회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달라고”을 당부하면서,
 - 도축장을 통한 ASF의 전파 차단을 위해 “도축장 진입 전 출하 돼지 임상검사, 출입 차량에 대한 철저한 세척·소독 및 차량 진·출입 동선의 구분 등 방역관리를 강화하여 달라고” 주문하였다.
- 또한 김현수 중수본부장은 강원 홍천군에 설치된 멧돼지 차단 울타리 현장을 꼼꼼히 둘러보고,
 - “가평·홍천 등 최근 ASF 발생이 잦은 지역의 울타리 관리, 폐사체 수색과 멧돼지 포획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” 강조하면서
 - “양돈농장의 차단방역 강화가 ASF 전파 차단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, 농장 종사자의 발생지역 인근 경작지 출입 금지, 축사 출입 시 손 씻기·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수칙 준수와 함께 모든 접촉을 최대한 자제하여 달라고” 당부하였다.